

장백산천지

제 272 호

2016 년 2 월 22 일

월요일

대륙민중 :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말하려 합니다

【밍후이왕 기자 보도】 중국에서 새해가 다가올 즈음, 파룬궁 진상을 알고 혜택을 본 대륙 각계 민중은 중공의 정보 봉쇄를 돌파하고 잇따라 축하편지와 카드를 밍후이왕에 보내 파룬따파(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으며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 했다. 이런 진심으로 우러난 축하문과 축하카드는 대륙백성들의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홍쯔 사부님의 거대한 도덕적 감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의 혜택을 입은 헤이룽장 하얼빈시의 한 시민은 리대사님께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올렸다.

저는 재생 불량성 빈혈환자입니다. 입원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성심성의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우면 병이 빨리 완쾌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매일 성심성의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웠습니다. 며칠을 외운 후 나의 병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의사는 화학 분석표를 갖고 와서 나에게 출원해 집으로 갈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아주 기뻐합니다.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합니다. 이는 리대사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리대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허베이 랑팡의 청화대학을 졸업한 80 세 되는 고급공정사는 사부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다.

저는 눈이 오는 날 외출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요추 5 절이 골절되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전신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친척이 나를 보러 왔다가 나더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真善忍好)!’ 아홉 글자를 외우면 빨리 완쾌 된다고 알려 주었고, 또 나에게 3 퇴(해외 탈당 인터넷 사이트에 당, 단, 대 탈퇴성명을 발표하다)를 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나는 반신반의 했지만 그래도 아홉 글자를 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친척이 저의 집을 떠난 지 2 시간도 안되어 나는 팔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감동되어 친척에게 전화로 파룬궁은 너무 신기하다. 그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웠는데 사부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나는 ‘전법륜’(轉法輪)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달 후 신체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나는 파룬따파를 확고하게 수련하겠습니다.

산둥 조위안 장성진의 77세 농민이 리대사님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리대사님, 사부님의 책을 보고 나의 모든 병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나는 사부님의 대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남을 위해 생각합니다.

산둥성 모 변호사 사무실 전체 직원이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리대사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다.

비할 바 없이 위대하신 리대사님 새해 안녕하세요! 인류의 언어를 다 담아도 저희의 마음속



깊은 리대사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파룬따파 수련생은 사존님의 가르침에 따라 ‘찐싼런’(真善忍)을 원칙으로 일마다 우선 타인을 생각하는 고상한 품격을 갖고 한 갈래 맑은 물 같처럼 인류사회의 일체 사악을 깨끗이 씻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중공의 거짓말에 기만 당하고 있는 세인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파룬궁 제자가 주는 매 한차례 기회를 진귀하게 여기고 파룬궁 진상을 똑똑히 알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真善忍好)!’를 믿어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진상을 똑똑히 알고 있는 산둥성 라이강(萊鋼)의 직원은 자비롭고 위대하신 리대사님께서 설날을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올렸다.

존경하시는 리대사님께서 새해에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사회는 도덕이 부패하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룬궁수련생 몸에서 광명과 미래를 보았고, 또 유일하게 파룬따파 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리대사님의 구도해준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자신의 능력을 다 하여 파룬따파의 아름다운 복음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어 그들의 영혼도 구원되어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알고 보니 파룬궁이 말한 것이 정말이군요.”

[밍후이왕] 하루는 대법제자 란(蘭) 아주머니가 공사를 청부 맡은 천상(陳祥) 사장과 마주치게 되어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 주었다. 천상이 말했다. “당신과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장쩌민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란 아주머니는 말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이며, 절대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으면 부처님의 보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상은 란 아주머니에게 중국공산당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란 아주머니는 그의 선량한 마음을 보고 파룬따파 호신부(護身符)를 주었다. 천상은 비록 믿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간수했다.

약 한달 넘어 천상이 갑자기 란 아주머니의 집을 기적같이 찾아왔다.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겨우 란 아주머니를 찾아왔다. 천상은 란 아주머니에게 경과를 말했다. 천상은 지난번에 진상을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차가 천상의 차 문을 들이박아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유리창이 모두 부서졌다. 그런데 천상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천상은 파룬따파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천상이 란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심한 교통사고에서 무사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계에는 정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들 대법제자가 한 이야기는 모두 정말이었습니다.”

란 아주머니는 천상에게 진정한 구명 은인은 파룬따파 사부님이시고 대법을 믿어 복을 받은 사례가 많고 많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현재까지 줄곧 선량한 대법제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을 학살하고, 심지어 생체에서 장기

를 적출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상은 이에 비분을 참지 못했으며 자신과 가족(가족이 동의했음)을 위해 ‘3 퇴’를 했다.

이렇게 또 1년이 넘는 어느 날, 천상은 선물을 갖고 다시 란 아주머니 집에 나타났다. 천상은 말하기를 대법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은 대법 사부님께 드리려고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정중하게 ‘전법륜’을 삼가 읽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천상은 선물을 파룬따파 사부님 법상 앞에 공손히 올려놓고 또 1년 동안 겪은 일들을 란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천상은 광저우(廣州)에서 공사를 맡아 다세대 주택을 헐게 됐다. 하는 과정에 붕괴사고가 일어나 조립식 패널이 발판을 내리쳐 발판이 끊어지면서 노동자 10여 명이 6 층에서 떨어져 기와와 벽돌 밑에 깔렸다. 천상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다. 놀라 혼비백산한 현장 지휘자는 천상을 향해 소리쳤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모두 묻혀 버렸어요.” 천상은 침착하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으면 무사 평안을 보장한다고 파룬궁수련생이 그에게 알려줬다고 말하면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상은 사람들과 함께 노동자들을 구출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사 결과는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0여 명 노동자는 피부에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노동자들도 신기해서 말했다. 무거운 시멘트 패널이 몸을 때릴 때도 충격을 받는 느낌이 없이 마치 포근한 이불을 덮는 것 같았고 따뜻하고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10여 명의 목숨이 구원되었고 열 몇 개 가정이 참사에서 벗어났다. 다시 한 번 파룬따파의 신기함이 확인됐다. 노동자들도 모두 감탄했다. “알고 보니 파룬궁이 말한 것이 정말이군요.”◇

‘분신자살’ 사기극을 조작한 자 암으로 또 사망

[밍 후이왕] CCTV 전 사회자 팡징(方靜)이 11월 18일 암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44세로 대만에서 사망했다. 팡징은 CCTV ‘동방시공’과 ‘초점방담(焦點訪談)’ 등 프로그램 사회자를 맡은바 있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팡징은 ‘텐안먼 분신자살’ 모함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2005년 1월 23일 CCTV ‘초점방담’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중국공산당 장쩌민이 2001년에 직접 조작한 ‘텐안먼 분신자살’ 사기극을 방송했고 허난에 가서 소위 ‘추적 인터뷰’를 했다고 했다. 팡징은 방송을 통해 파룬궁을 모함하고 계속 거짓말로 대륙 민중을 속여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 12월 23일, CCTV ‘초점방담’의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의 주요 제작자 천홍(陳虹)이 위암 발견 9개월 후에 베이징 종양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했다. 당시 그는 47세였다.

CCTV ‘뉴스연합보도’ 사회자 뤼징(羅京)은 파룬궁을 모함하는 가짜 뉴스를 대량 방송했다. ‘텐안먼 분신자살’ 사기극 뉴스방송에서 뤼징은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우고 비방했다. 2009년 6월 5일, 뤼징은 림프암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48세였다.

2013년 중국공산당 중앙 ‘610 사무실’ 주임에서 낙마한 리동성(李東生)은 본래 ‘초점방담’ 프로그램 제작자 중 한 사람이다. 1999년 6월, CCTV 부국장 신분으로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위해 조작한 중앙 ‘610 사무실’에서 선전을 책임진 부주임이 됐으며, CCTV 부국장과 ‘610’ 부주임 이중 신분으로 텐안먼 분신자살 사기극 제작과 보도에 적극 참여하고 기획했다.

CCTV ‘텐안먼 분신 자살’ 비디오의 화면에서 왕진둥(王進東)은 온 몸은 다 땀으나 머리카락은 여전했고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병도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였다. 그의 뒤에 경찰이 줄곧 소화용 담요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왕진둥이 구호를 다 외친 후에야 비로소 소화용 담요를 그의 몸에 덮었다. 도대체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연변박해소식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불법 재판에 직면

2015년 12월 19일 오후, 지린성 연변주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리시렌(李喜蓮)은 거리에서 납치된 후 지금까지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1월 8일에 불법재판을 한다고 했다. 직접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 쉬레이(徐磊): 18043304156